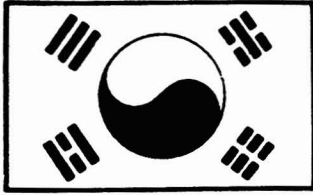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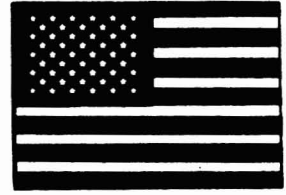


Published by the Seattle-Washington Korean Association



SEATTLE • WASH STATE
KOREAN ASSOCIATION
GREENWOOD P.O. BOX 30065
SEATTLE, WA 98103-0065
(206) 362-4500
KWANGNAM YOON - Publisher
Soon Kwon Lee - Edi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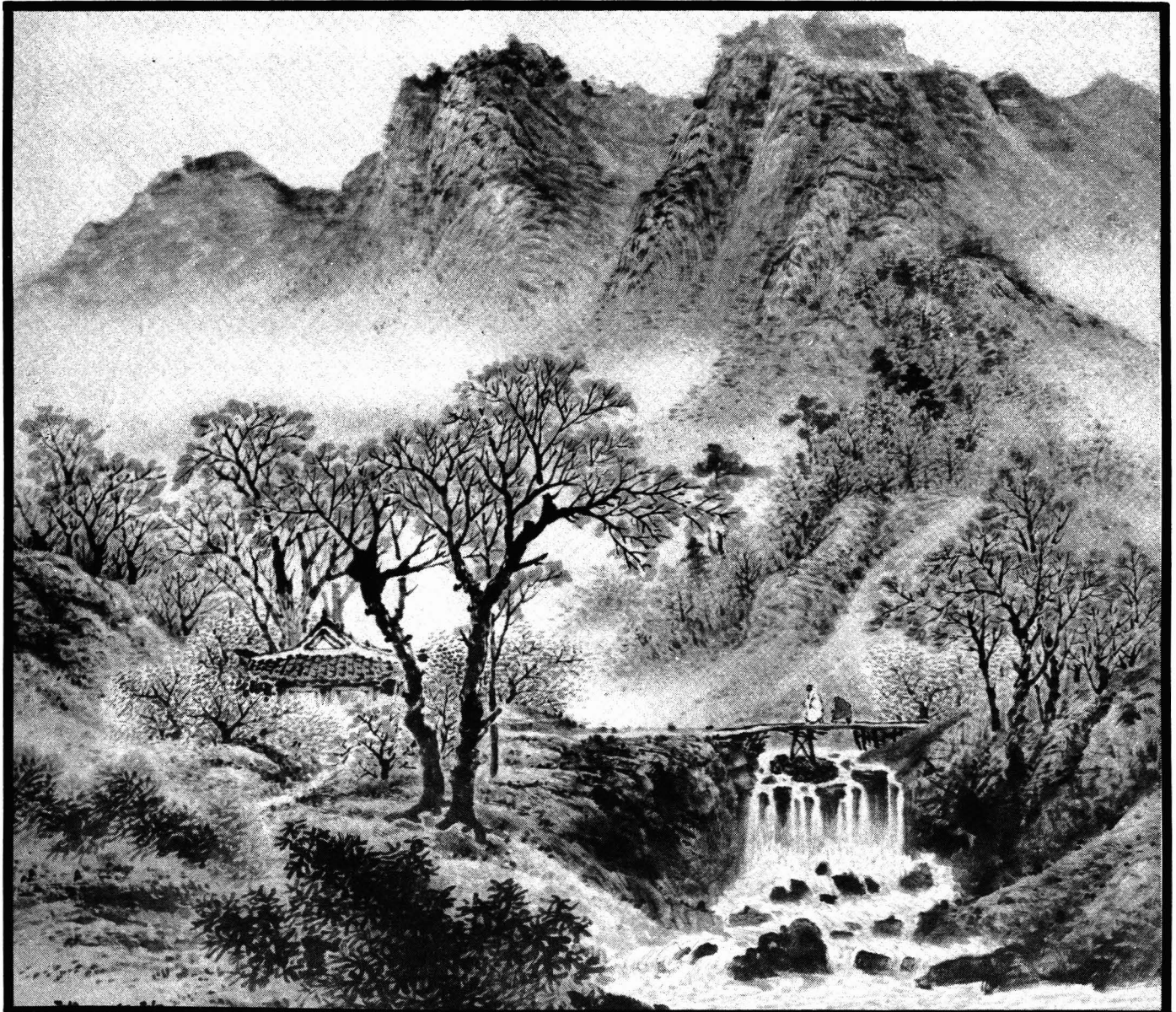


한인회보

1987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1



고민여러분 안녕하세요?

품질에서 앞서가는 주단화화장품이 25주년의 전통아래 아름다운의 메시지를 세계속에 심기위해 이곳 타코마에 도착하였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따뜻한 성원에 보답코저 본사에서 파견되어온 미용지도사원이 여러분의 미용상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화장품 주단화는 세계여성을 위해 제품의 우수성과 새로운 미용법 개발에 선구자가 될것을 약속드리며 화장을 하시다 공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또는 미용상담을 원하시는분은 신신백화점내 주단화화장품 타코마지사로 직접 찾아오시거나 바로 여러분의 전화 582-2976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별 연락처 =

Lynnwood	최재돈 (206)775-6161	Portland	Jenny Waner (503)775-4202
South Seattle	나용섭 (206)937-3792	Farmington	Baek H. Kim (503)646-6611
Federal Way	송경자 (206)927-5237	Olympia	옥영희 (206)459-8429

(206) 582- 2976 582- 2975
주단화화장품 타코마지사

한국의 화장품(주)
타코마대리점

자연이 피부에 스며요.

주단화 메시브화장품

수출한 가용바탕, 청아한 가용피부 자연화장품 「주단화 메시브화장품」으로 피부가 투명하게 살아납니다.

천연성분의 「주단화 메시브화장품」으로 「자연의 숨결」을 느끼십시오.

자연의 생명력으로 피부의 긴장을 풀고 젊음을 되찾려 장아하게 빛나는 가용피부를 지키십시오.

자연피부, 자연화장품 「주단화 메시브화장품」

Our Standart Cost At Ken Cosmetics

주단화 메시브 S.M.I.S.O.호

주단화 메시브는 피부에 많은 양수의 가용성 산뜻합니다. 메시브 : 주단화 메시브는 피부에 많은 양수의 가용성 산뜻합니다. NATURAL, 천연성분을 꼭 함유하고있으며 메시브는 피부에 자연스럽게 살아옵니다.

- 주단화 메시브 메시브시크린.....100%
- 주단화 메시브 메시브시크린.....100%
- 주단화 메시브 메시브시크린.....100%
- 주단화 메시브 메시브시크린.....100%

자연과 과학의 조화



17711TH AVENUE, SUITE 100, TACOMA, WA 98498, U.S.A. TEL: (206) 582-2975

- 목 차 -



권두언(윤광남 한인회장).....	4
인사말	
안세훈 총영사	5
고봉식 한인회이사장	6
한인회 임원프로필	8
성장하는 한인회(윤흥남 총무)	10
김동길 교수와의 대담	12
교포 재정투자신탁에 관한 정보(최한준 청년부장)	14
종교칼럼(이현규목사)	17
청소년 교육(오계희박사).....	18
한인회 이모저모	22
인캄택스 보고요령(이석주)	24
사치성 경쟁(김준)	30
박종철군 고문치사에 관한 결의문	32
1987년도 한인회 사업계획	33
한인회 업무안내	36
시 (서정애)	37

권두언

존경하는 교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오늘의
한인회가 있기까지 수고와 노력을 아끼
지 않으신 여러 선배님과 교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는 무한한 가능성을 보유하고
꿈을 가진 저희 임원팀과 이사팀을 믿으
며 똘치고 단결하는 새로운 한인회가 탄
생하는 정묘년이 될것을 믿습니다.

한인회에 대한 교포 여러분들의 기대
가 지대하리라 믿으며, 새로 출범하는 제
20대 한인회는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
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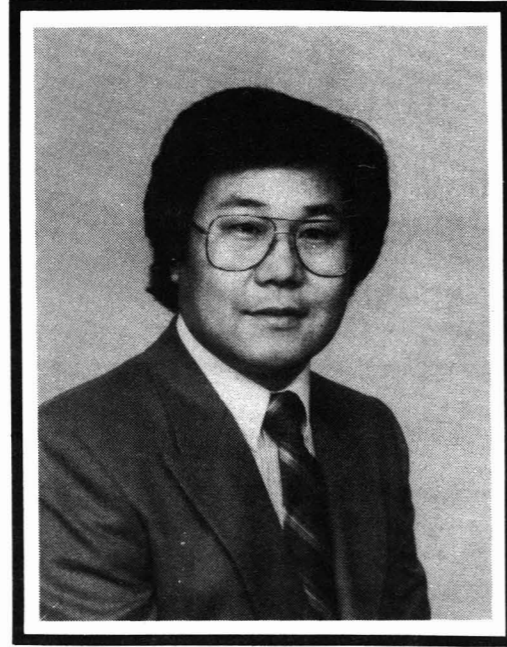
『한알의 밀알이 이땅에 떨어져 썩을때
많은 열매를 맺을수 있다』는 말씀처럼
누군가가 썩지 않으면 안됩니다. 남이 자
신을 위해 희생해주기를 바라고 기대하
기에 앞서 나 자신이 남을 위해 희생할수
있는 정신과 각오를 가지고 「너」와 「내」
가 있는곳에 「우리」가 있고 「우리」가 있
는곳에 훌륭하고 위대한 한국인이 있다
고 생각한다면 훌륭한 교포사회를 이룩
할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교포여러분!

한인회의 발전을 위해 힘껏 격려해주
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내가 있기에 당
신이 있고, 우리가 있기에 뜨거운 동포애
가 있다는것을 자각해주시면 우리 교포
사회가 미국속에서 훌륭히 성장, 발전하
리라 생각합니다.

연간 4억불이 넘는 현금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우리들의(전미주) 경제적인 성
장과 함께 정치적 참정권을 더욱 신장하
여 미국내 모든선거에 적극 참여하여 Kor
ean Community의 저력과 강력한 Voting Pow
er을 형성하는데 앞장서서 나아갑시다.

우리는 관광객도, 피난민도 아닙니다.
굳건히 이땅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후
손을 키우며 이땅의 주인으로 Main Stream
으로 살아가는 미국속의 Korean 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훗날 우리가 무엇을 했
느냐고 물을때 자신있게 부끄럼없이 대
답할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존 F. 케네디의 말처럼 한인사회가 나
를위해 무엇을 해줄수 있겠느냐고 묻지
말고 우리모두가 한인사회를 위해 무엇
을 해야 하느냐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정
묘년이 되도록 우리 손과 손을 마주잡고
노력합시다.

20대 한인회는 과거 어느때보다 젊고
무한한 가능성과 능력을 가진 임원으로
구성되어 불같은 힘과 열성으로 바위도
뚫을수 있는 정력과 성취욕이 있을줄 아
오나 젊기 때문에 저지르기 쉬운 잘못이
있더라도 여러 교포들의 이해와 사랑으
로 격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교포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과
건강하심을 기원하면서 인사에 거듭하고
자 합니다.

1987년 1월 25일
한인회 회장 윤광남

회보발간을 축하드리며

안세훈 총영사



희망의 새해, 1987년을 맞아 시애틀지
역의 교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애틀
한인회에서 발행되는 회보를 위하여 몇
말씀 올리게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애틀 한인회는 작년 11월 정기총회
에서 윤광남씨를 회장으로 선임하여, 오
는 1년간 윤회장과 임원 여러분이 한인
사회를 위하여 수고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이주하여 하는 한국인 100만명
이 넘는 오늘날, 한인회에서 하는일에 대
하여는 여러가지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한인회는 명실상부한 한인사
회의 대표적인 기관임에 비추어 다른단
체가 하지 못할일을 하여야 한다는데 대
하여는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예
컨데 어느 대학동창회나 어느 운동협회
같은 소규모의 기관이 하는이과 한인회
의 기능은 달라야 할것입니다.

이점에서 한인회가 정기적으로 발간
하는 회보는 중요한 일로서, 전 한인사회
를 위한 「등대」의 역할을 하여야 할것입
니다.

특히 시애틀 한인회는 타지역 한인회
와 같이 내년의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올
림픽 후원을 위한 많은 사업을 예정하고
있어, 금후 더욱 바쁘게 될것이며, 회보
를 통한 홍보도 많아질것입니다.

이번의 한인회 역원은 종전에 비하여
년부역강한 젊은 에리트가 많이 참가함
에 비추어 이지역 한인회를 위하여 많은 공
헌과 봉사가 있을것을 모두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교민여러분의 건강하시고, 새
한인회 사업을 위하여 많이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글을 맺습니다.

이사장 인사말씀

고봉식 이사장



친애하는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회원 여러분, 희망찬 정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본인은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하시는 일이 어느때보다도 더욱 번영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금년도 어느때보다도 한인들의 지대한 관심과 성원속에서 탄생된 한인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은 여러분의 성원에 어긋나지 않는 알찬 사업과 봉사로서 어느때보다 단결과 사랑받는 한인회가 되고저 최선을 다할것입니다. 따라서 젊고 참신한 엘리트들로서 한인회 임원을 구성하였고 전 한인들의 참여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하여 한인들이 중심적인 단체의 장들을 한인회 이사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큰 관심과 성의로 받아들여질것로 압니다.

우리는 조국이 선진사회를 이룩하는데 발맞추어 우리 워싱턴 한인교포들도 새로운 이민사회 정착을 위하여 우리모두가 단결하여 알 권리를 찾고 훌륭한 한인사회 이미지를 심어 인정받는 한인사회를 건설하는데 우리들이 앞장을 설것입니다.

끝으로 교민여러분들의 가정에 더욱 번영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한인생활상담소

한인생활상담소

Korean Community Counseling Center
302 N 78th Street
Seattle, WA 98103
(Woodland park Methodist Church 안에
위치하고 있음)

●건강상담

건강상담실은 매주 화요일에 조재승의사(Family Prachie)선생님을 모시고 교포들의 예방교육 또는 건강관리 상담을 해드리며, 전문의와의 연락등 치료과정을 도와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조박사께서는 1949년 서울의대를 졸업, 서울 시립병원에 근무하셨고, 1968년부터 4년간 서아프리카 리베리아에서 의료봉사단으로 봉사하셨고 1973년에 도미하시어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뉴저지등 각주의 중요병원을 순회치료활동을 하셨습니다. 특히 소아과, 내과, 정신과, 노인과등 다방면에 의료경험이 풍부하신 분으로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이용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법률상담

개소 3주년을 맞아 기념사업으로 시작된 무료법률상담실은 매주 토요일 12시부터 3시까지, 교포사회에 널리 알려진 심영식(Harold Riach) 등 교포 변호사들의 도움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법률관계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나 경제적으로 이를 감당할수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마련되었으니, 궁금하신점이 있으신 분은 미리 상담소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의 계획

상담소는 생활영어반외에 각종 성인교육세미나를 계획하고 있으며 오는 2월 28일에는 다음과 같이 법률강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창립의 역사

이 상담소는 시애틀에 거주하는 뜻있는 여러분들이 모여 서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이신 이태영박사님의 뜻을 이어받아 1983년 8월 19일에 현주소에서 많은 회원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엄숙한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이 상담소는 비영리단체로서 그동안 많은 자원봉사자들과 회원의 활동으로 150여명의 회원을 가진 큰 기관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활 동

현재의 활동으로는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원활한 해결을 돕고 언어의 장벽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때는 통역이나 번역을 제공하며, 특히 가정문제, 개인, 청소년, 웰페어 문제등을 친절히 무료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관계, 건강문제등 전문인의 도움이 필요할시에는 이에 대한 정보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활동은 현재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담소 근무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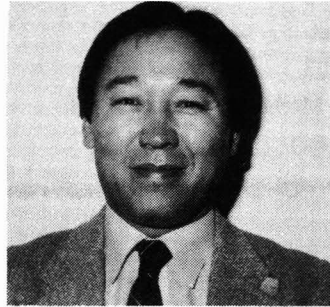
상담소는 매일(주말제외) 9시부터 2시까지 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외에 연락을 취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녹음장치를 하고 있으니 메세지를 남겨놓으시면 가능한 빨리 우리 봉사자들이 여러분에게 연락을 취할것입니다.

●생활영어강좌

성인교육의 일부 프로그램으로 생활영어강좌를 지난 1984년 5월부터 상담소 주최로 시작,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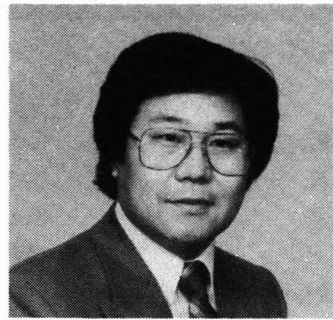
매주 토요일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기초 회화반과 생활영어반으로 나누어 민난희씨의 지도아래 강좌가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은 상담소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987년도 한인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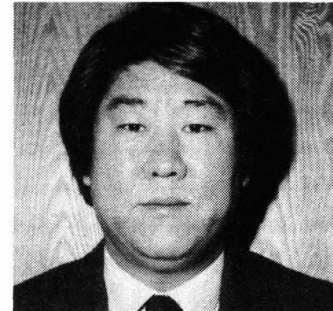
부회장 : 이정섭

- 인하공대
- 세탁소 경영



회 장 : 윤광남

- 외국어 대학교
- M & P Inc. Presid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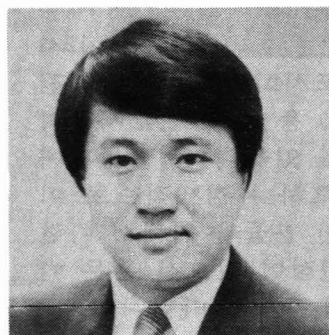
부회장 : 성동민

- 성균관 대학교
- Market 경영



총 무 : 윤홍남

- 전국대 사학과
- UW 정치학과
- 수원시 대학생 총연합회 회장
- U.S. Post Office



재 무 : 김용철

- 연세대
- UW 회계학
- UW (MBA)
- 공인회계사



섭 외 : 김영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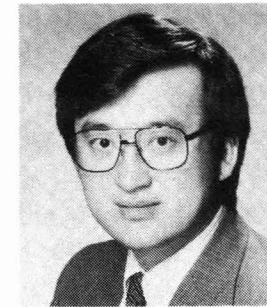
- First Interstate Bank Vice President



법 률 : 이동훈

- UW B.A.
- UW 법과대학
- 변호사

임원 프로필



홍 보 : 유창명

- UW 회계학
- Insurance Agent(보험업)



교 육 : 최영우

- 서울대학교 수학과
- 서울대학교 대학원
- Real Estate Ag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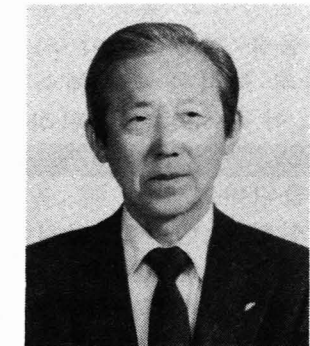
문 화 : 장광범

- New York 주립대
- 공인회계사
- Restaurant 경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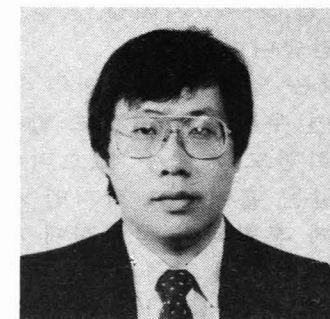
체 육 : 박창모

- 중앙대학교
- 세탁소 경영



경 노 : 김현택

- 전북대학교 교수 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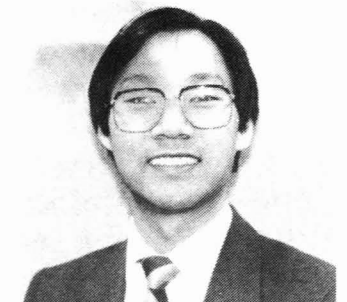
청 년 : 최한준

- 연세대
- American University 수학과
-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MBA
- Merrill Lynch Financial Consultant



부 녀 : 고국지

- 숙명여대 국문과
- Hair Fair



편 집 : 이순권

- 총신대 신학원
- 연세대 신학원
- Linda Vista Seminary

성장하는 한인회

윤흥남 <한인회 총무>

어느날 쥐들이 모여 회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고양이가 오는것을 미리알고 공포를 면할 수 있을까였읍니다. 쥐들이 갑론을박끝에 결론을 내렸는데 그것은 고양이의 목에 방울을 달자는 것이었읍니다. 방울을 단면 고양이가 움직일때 나는 소리를 들을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쥐들은 고양이가 울때를 알아내는 방법은 찾았으나 문제는 「누가 그 고양이의 목에 방울을 다느냐」였읍니다. 어느쥐도 나서지 못했읍니다. 고양이의 목에 방울을 달기 위해서는 죽음을 감당하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쥐들의 목적은 죽음에서 해방되기 위함이요, 이 목적성취를 위하여 현명한 방법까지 만들었으나 누구도 실천에 나서지 못했읍니다.

씨애틀 워싱턴주 한인회 회칙에 보면 다음과 같이 목적을 명시했읍니다.

제3조 7A항에 『회원의 권익을 옹호하고 사회적으로 상호협조하고 나아가 한·미간의 문화교류와 우호증진에 기여하는 일』임을 분명히 명시했읍니다. 회칙에서와 같이 우리는 한인사회의 권익과 공익을 위한 한인회임을 뚜렷하게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금년도 한인회는 한국의날 행사, Sea-Fair 행사, 청소년캠프, 체육대회, 3.1절 기념식, 정보교환, 8.15 광복절 기념식, 전문가들의 상담, 특히 건축기금을 위한 디너 파티, 킹카운티 도서관에 한국역사책 기증, 불우이웃을 위한 식사제공, 미국인 가정에서 입양한 어린이를 위한 캠프지원 등등 많은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성장하는 한인회를 위한 원칙을 저 나름대로 몇가지 생각해 보았읍니다.

첫째로 교민여러분의 한인회가 되기 위하여 한인여러분의 참여(participation)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참여라 하여

회비만을 의미하는것은 아닙니다. 시간을 내시어 여러행사에 함께 자리를 해주심으로써 한인회에 큰힘이 되는 것입니다. 성장된 한인회의 모습은 한인회의 예산이 많아서가 아니라 교민여러분의 참여속에 이룩될수 있음을 믿읍니다.

둘째로, 올바른 지도자를 갖는 일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참여는 바로 투표와 직결이 되는데 투표권을 행사하시어 올바른 지도자를 선출하는 일입니다. 진실하고 능력있는 지도자를 세움으로써 한인사회 공익을 위하여 미국사회속에 효과적으로 대표하는 한인회가 되는것이 성장된 한인회의 모습이라 믿어집니다.

셋째로, 올바른 지도자라 하더라도 교민의 지원이 없이는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민의 후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인회는 예산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민여러분들의 협조로 운영되는 단체이기 때문입니다.

성숙된 한인회는 성숙된 교민의 민주 의식을 바탕으로 될것이라 믿읍니다. 한인사회를 위하여 부담하여야할 경비는 교민이 서로 나누어 가지면 지도자는 재정을 덜 염려하게 되고 한인사회 유익을 위하여 시간, 정열, 지식, 지혜를 동원하여 헌신하리라 믿읍니다.

개인이 할수없는 일을 3,000세대의 한인이 힘을 합치면 우리는 어떤것도 할수 있습니다. 한인회관도 지을수 있으리라 믿읍니다. 모래알은 흩어지고 작지만 시멘트와 물이 함께 혼합되어 굳어질때 건물도 되고 댐도 건설하지 않읍니까?

크라이슬러 회장이신 Lee Iacocca는 어려움에 처해있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equality of sacrifice」의 원칙을 적용해서 회사를 살렸다고 합니다. 조금씩 먼저 서로 희생을 감수하면 한인사회공익(public good)을 이룩할수 있습니다.

넷째로, 성장된 한인회는 책임맡은 한인회 임원들의 노력과 헌신에 의하리라 믿읍니다. 우리 한인회 임원들이 책임과 사명의식을 갖고 일치단결하는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임원들은 한인회의 모든계획, 실천이 교민여러분에게 의하여 정당성을 인정받도록 숙고하여 일을 하겠읍니다.

한인회가 잘되는것은 미국사회에 한국민의 긍지를 심는일이요 좋은 이미지를 주는것이라 봅니다. 내 가정이 잘되면 가족들이 잘되는 것이요, 내 국가, 민족이 잘되면 백성이 잘되는 것일진데 우리 한인회가 잘되는것은 우리 교민이 잘되는 것으로 믿읍니다.

끝으로 씨애틀 워싱턴주 한인회는 교민을 위한 교민에 의한 교민의 한인회가 되도록 이루어질것을 믿으며 이 소견을 마치고자 합니다.



한국외환은행

씨애틀지점

Suite 2111, 600 University St Seattle, WA 98101

- 취급업무 : 대출(SBA Loan 도 취급)
 송금, 수출, 수입
- 전화번호 : 622-7821
- 위 치 : University St와 6th Ave 소재
 One Union Square Bldg. 21층
- 업무시간 : 오전 9:00~오후 5:00

김동길 교수와의 대담

통일·교회·이민사회

참석자 : 윤광남 한인회장
고봉식 이사장
윤홍남 총무
김성목 목사
정병국 초대위원장
고정제 KOMA TV

-김동길 교수는 역사를 전공하신분으로 한반도의 역사적 관점에서 본 통일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줄로 압니다. 먼저 우리 교인들이 통일에 관한 교포의 역할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윤홍남)

○통일문제는 조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부에서는 경제번영, 정치안정, 민주화가 중요하다고 보지만 이런문제는 결국 조국통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제때에는 애국적 전지에서 역시 한국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독립이었습니다.

도산 안창호선생은 밤을 머어도 독립, 잠을 자도 조선의 독립을 외치신 민족사의 위인이었습니다. 도산선생님과 같이 현재에 있어서 한반도에 있어 통일에 환장한 사람이 가장 중요한 점을 차지한 자입니다. 불행하게도 통일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해야겠다는 자세가 아니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제부흥, 정치안정, 반공을 내세우나 중요한것은 남북의 통일입니다.

내가 여행자유화의 바람으로 10년간 해외에 못나왔다가 나왔을때 느낀것인데, 70년대에 교민사회는 상당히 커졌읍니다. 이제는 어딜가면지 한인을 만나볼수 있습니다. 한글로 된 간판을 보고 저는 새로운 감각을 받았읍니다. 이 성장한 교민사회를 보고 하늘의 계시처럼 깨달은게 있는데 역시 조국의 통일에 관한 영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민사회도 자리를 잡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돈을 벌었다는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현상은 자리를 잡은분들이 미국사회에 동화는 찾지않고 언제나 생각하는것이 「한국인」 그리고 「조국」입니다.

동구에서 이민온자들은 먹고살기 힘들어 왔는데 한국에서 이민온분들은 먹고살수 있고 교육받은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여기서 말할수 있는것은 한국의 이민성격을 알수 있는데 그것은 정치성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이민와서 먹고살면 되는데, 교민들은 한국의 민주주의에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궁극적인 이민사회의 목표(goal)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Zionism(시온이즘)과 같이 한반도의 통일이어야 하겠읍니다.

중국 길림성 연변 조선자치족 70만을 포함한 2백만, 그리고 미주 1백만, 일본 60만, 재외동포들의 힘을 합쳐 민족의 통일을 앞당길수 있는 길은 양쪽이 서로 양보해야 하는데 재외동포들이 발언을 함으로써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재외동포들이 남·북외에 제3세력으로 힘의 구축이 가능하다고 보지요.

-그러면 이민사회에서 교회의 역할이 있다면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성목 목사)

○교회가 한인사회의 중심이 된것은 사실입니다. 이민사회에서 교회가 이렇게 커져간것은 기적입니다. 이렇게 교회

가 잘되는것은 무슨 사명감이 있다고 봅니다. 한반도 통일문제 역시 미국에서의 한인교회가 크게 기여할것이라 생각됩니다.

가령, 자유와 평등이 있습니다. 이 두가지는 같이 양립(incompatible)할수 없습니다. 자유가 있는곳에는 평등이 없고, 평등이 있는곳에는 자유가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이 양립할수 없는 자유와 평등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불란서 혁명의 표어가 자유, 평등, 사랑 이라는것이 나왔읍니다.

이민교회는 남과북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일에 노력하여야 되겠읍니다. 한국인은 집안끼리, 동창끼리, 교향사람끼리는 일을 하지만 이 어려운 한국인 습성은 버리고 교회라는 World Community 를 통해서 복잡한 한인사회 생활의 파벌습성을 갚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고 했읍니다. 이민교회는 민족사적 사명이 있습니다. 한국을 세계적으로 만든것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100년의 짧은 역사가 세계를 향하여 놀랍게 성장했습니다. 특히한것은 한국에 있는 교회는 통일에 관하여 마음대로 말할수 없지만 미주 한인교회는 통일에 사명을 말할수 있습니다.

-김교수님께서 해외동포 세력이 제3의 세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민사회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윤홍남)

○남과 북이 자주 만나서 대화하여야 합니다. 첫째로 미국 시민권을 가진 많은 (500명~1,000명) 한인들이 순전히 관광목적으로 「강산을 보러가보자」 하는 운동

이 있어야 하겠고 둘째로, 남북한 학생을 미국으로라도 초대해서 2000년대의 주인인 학생들간에 만나서 대화하도록 하자, 대화를 통해서 38선을 없애자 하는 일들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해야할 일들은 자유를 가진데서 우선하게 됩니다. 인간을 자유를 홀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등은 후에 오게 됩니다. 소련혁명이 80년이지지도도 사하로프같은 인물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조국의 최대 이슈는 통일입니다.

나는 통일문제를 위해서 젊은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고 소리질러도 나이는 분이 물려주지 않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여인이 난자중 가장 큰자라 했읍니다. 젊은 청년층에게 지도권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이민사회에 대하여 하고 싶으신 말씀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윤광남)

○이민오신분들은 신용을 쌓아가야 합니다. IRS 에서 한 주인의 Tax Return 보고는 조사안해도 믿을수 있도록 신용을 쌓아야 합니다. 미국인들과 개인관계를 맺으면서 국익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될것입니다. 또 한가지 있다면 한국사람은 흑인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흑인들 사회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백인들 사이에서 살려하지 말고 흑인들로부터 돈을 벌었으면 흑인을 위해서 쓸줄도 알아야 하겠읍니다.

카네기의 부이론 「Gospel of Wealth」에 보니까 빈돈을 민중을 위해서 쓰는것입니다. 흑인과 한인은 연대를 가지고 서로 키워나가야 합니다.

한국일보
구독문의 622-2229
광고문의

★ 한인회비를 납부하여 우리교포사회 상부상조 합니다.
★ 회비는 가족당 \$20.00

교포 재정투자신탁에 관한 정보

-효율적인 돈관리에 대한 정보-

최한준(한인회 청년부장)

- 연세대 재학중 도미 유학
- 워싱턴 D.C. American University 수학전공
- 조지아 워싱턴 대학 경영학 석사(MBA)
- 현 Merrill Lynch 투자회사 근무

-편집자주-

한국은 금융시장이 발달되지 않았으나 미국은 모든분야에 대해 발달되어 있는중 특히 금융시장이 발달되어 있고 제도적 장치가 잘되어 있다. 어떻게 하면 교민사회에서의 재정투자신탁에 관한것과 주식투자에 관한 정보를 알수있는지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알아보았다.



미국사회에서 실지 많은 미국인들은 단순히 은행에 정기에금(CD)하는 방법 이외에 훨씬 높은 수익성을 바라볼수 있는 다른 투자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자기의 돈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우리 한인교포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한국사회의 경우, 현재도 크게 달라진 것은 없지만, 특히 과거에는 금융시장이 라고는 은행밖에는 없었다고 보아도 무리는 아닐것이다. 이런사회에서 성장해 온 우리로서는 은행외의 다른것은 거의 알수가 없었고 그런 가운데 미국에 온후로는 벽찬 이민생활과 언어장애등 한마디로 이곳이 외국이기 때문에 금융정보 면에서 뒤떨어지지 않을수밖에 없다.

미국은 세계어느나라보다 많은 분야에 있어서 훨씬 발달이 되어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바이다. 또한 발달이 되어있다는 것은 곧 대중화되어 있다고도 볼수 있겠다. 특히 두드러지게 발달이 되어있고 대중화되어 있는것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이 금융시장이라고 할수가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돈관리, 즉 돈 투자하는 방법이라 할수가 있다. 이렇게 발달이 되어있기 때문에 미국인들의 경우도 전문

가가 아닌이상 정확하게 어떠한 돈 관리하는 방법이 있다는것을 알기는 힘드므로 투자상담 전문회사에서 공식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재정상담인(Financial Consultant)와 상의를 함으로써 개개인 상황과 목적하는 바에 따라 이 발달된 제도를 충분히 사용하여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한인교포들의 경우는 많은분들이 이 좋은 발달된 금융시장을 갖고 있는 미국서 살고 있으면서도 위에서 지적한 이유등으로 인하여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때 전문가인 필자의 입장에서 보면 안타까움을 금할수 없다.

은행을 사용하는것이 절대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은행은 은행 나름대로의 용도가 있는법이고, 결국 얼마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장기로 은행에 예금할 돈이라면 찬 은행이자에 구속될것이 아니고 많은 돈관리하는 방법중 자기에게 맞는것을 골라 제대로 인플레이션을 따라잡으며 증식시킬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것이 현명한 돈관리라 할수 있겠다. 이러한 뜻에서 Mutual Fund 라는 것을 소개해드리고자 한다.

Mutual Fund에 투자한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여 어떤 특정한 투자 전문회사가 돈을 맡기고 그 투자회사의 투자전문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돈을 관리하게, 즉 투자하게 하는것을 뜻한다. Mutual Fund 가 미국에 600개 이상이 있으며 그 규모 또한 작은것은 몇억불짜리부터 큰 규모의 것으로는 100억불에 가까울 정도다. 얼마나 많은 미국시민 개개인들이 투자를 했는지를 알수 있겠다. 개개인뿐만 아니라 일반회사, 보험회사, Pension Fund 등 기관에서도 실지 많이 투자하고 있다.

특히 이 Mutual Fund 를 소개시키는 이유도 미국내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Mutual Fund 가 처음 시작 최저액수를 250불로 하고 있으며 일단 시작하고 난후에는 최저 투자액수가 50불인 경우가 많다. 한국의 적금처럼 매달 꼭 얼마를 투자해야 되는것은 절대 아니다. 미국서 최저입금을 받는 사람마저도 몇달 돈을 모아서 50불이 만들어진다면 할수있도록 제도적으로 대중성을 띄고 있는것이다.

먼저 Mutual Fund 가 갖고 있는 외적인 특성을 검토해 보겠다. 첫째, 대다수의 Mutual Fund 가 미국내에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일부는 미국에 얼마, 아시아에 얼마, 유럽에 얼마를 투자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아시아 국가에만 한다면가 이런식으로 투자지역이 각각 정해져 있다.

둘째, 무엇에 투자하느냐가 또한 각각 제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Stock(주식), Bond(회사채권), Government Securities(연방정부 채권), Municipal Bond(주정부 혹은 시 발행채권), 또 Money Market Instruments(기간이 1년미만인 투자)등 각각의 Mutual Fund가 이중 어떤곳에 투자를 한다는것이 다르다는 것이다.

셋째, 같은 Stock과 Bond에 투자를 한다 해도 얼마 투자한다는 %가 틀린다. 또한 이 %는 수시로 바뀔수 있는 것이다. 이 얘기는 투자전문가들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혹은 연구결과에 따라 최대의 이익을 낼수 있는 곳으로 바뀌가며 투자를 하는것을 뜻한다. 그럼으로써 고객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줄수 있는것이다.

이상의 설명만으로 본다 하더라도 몇가지 큰 장점을 찾아볼수 있겠다. 첫째 전문가들에 의한 투자라고 볼수 있다. 급변하는 경제속에서 개인의 힘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함으로써 최고의 이익을 꾀한다는 것은 실지 시간적 여유와 능력이 딸린다는 것은 잘 이해가 갈것이다.

둘째, 분산(diversification)이 자동적으로 된다는 것이다. 이 분산이야말로 모든투자의 기본원리임을 잘 알것이다. 부동산의 경우도 모든 돈을 한곳에 투자하는 것은 큰 이익을 볼 확률도 있지만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한다고 볼수 있다. 가령 A라는 사람이 5,000불을 투자한다고 예를 들어보면 이 5,000불을 갖고 할수 있는 투자종류나 갯수는 제약을 받을것이다. 하지만 Mutual Fund에 투자할 경우 전문가들이 이렇게 수많은 개개인이나 기관으로부터 받은 돈을 갖고 100군데~200군데에 투자를 함으로써 A가 투자한 5,000불이 실지로 어떤곳에 10불, 또 다른곳에는 50불 이런식으로 여러군데에 저절로 조금씩 분산이 되어 투자가 되어지는 것이다. 개인이 혼자 힘으로 100~200군데를 고른다는것은 이 투자로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이 아닌 이상 시간적 여유도 없을뿐더러 그렇게 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을것이다.

이렇게 분산이 됴므로하여 일부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나머지 대다수에서 이익을 봄으로써 전체적으로 이익을 보면 결국 목적하는 바를 달성한것이라 할수 있겠다.

셋째, 이상 두가지 장점으로 인하여 모든 투자에서 따르는 위험도가 저하된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투자자들이 원하는바가 아니겠는가?

지금까지 외적인 특성(투자지역, 무엇에 투자하나 등)을 검토해 보았고 이번에는 내적인 특성에 대해 설명하겠다. 600개가 넘는 Mutual Fund 가 있지만 크게 세가지로 분류한다면 성장목적(growth), 이자목적(income), 그리고 두가지 합한것(total return)으로 나눌수 있다. 쉽게 얘기해

(38면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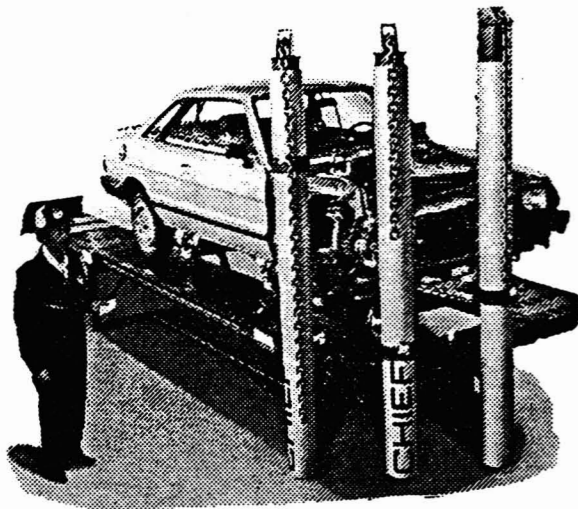
THE '99' BODY SHOP

- ◎ 바디&페인팅
- ◎ 유니 바디 스페셜
- ◎ 특수 칼라 매치
- ◎ 각종 차 유리
- ◎ 각종 용접
- ◎ 보험 처리
- ◎ 무료 토잉
- ◎ 무료 견적
- ◎ 교포 특별우대
- ◎ 트랜스 밋손 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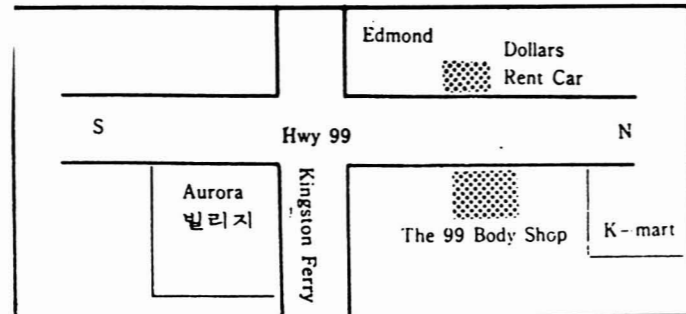
30년의 경험으로 정성껏
모실것을 약속합니다.

OPEN
월~금 8:00AM~6:00PM
토 9:00AM~2:00PM

778 - 9330 B
672 - 4842 R



23125 HWY 99 EDMONDS, WA 98020



참으로 귀한 사람

이현규 목사
〈시애틀 순복음교회 담임〉

사람은 누구나 귀한 사람이 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사람들은 이를 위해 살아가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사람은 공부를 많이해서 교수가 되거나 박사가 되어 귀한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좋은일입니다. 어떤사람은 권력을 잡아서 정치적으로 높은사람이 되어서 귀한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좋은일입니다. 어떤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귀한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이것도 좋은일입니다. 어떤사람은 예술로, 어떤사람은 종교로 어떤사람은 윤리와 도덕으로 어떤사람은 선한일로 귀한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모두다 좋은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두어야할 틀림없는 사실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귀한사람이 되지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지 아니하시면 결코 귀한사람이 될수없다는 사실입니다.

김일성은 북한공산당의 수령으로서 사람이 누릴수 있는 모든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언뜻 보기에 귀한사람같지만은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지 아니하기 때문에 결코 귀한사람이 아닙니다.

얼마전 그가 총을 맞아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때 세상사람들은 모두다 기뻐했습니다. 어떤집 앞에는 「축 김일성 사망」이란 붓글씨가 적혀있었다는 말도 들었고 술집마다 축하객들로 초만원이 이루어졌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집에 기르던 짐승이 죽어도 사람들이 슬퍼하고 우는데 사람이 죽었다는데 어찌하여 다른사람들이 기뻐할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지 않기 때문

입니다.

사람이 진실로 귀한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할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사람이 될수 있을까요?

첫째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로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며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지 않으면 누구도 참다운 삶의 의미와 보람을 찾을길이 없으며 참평안과 참기쁨, 참진리를 누릴수 없는것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2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면 나있는곳에 너희도 있으리라. 너희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한분도 빠짐없이 1)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고 2)교회에 나오셔서 헌신하시고 3)그래서 하나님께 귀히여기심을 받아 참으로 귀한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면 천히 여겨질수 없으며 하나님이 천히 여기시면 귀히 여겨질수 없는것입니다.

청소년 교육

오계희 박사

〈시애틀 한글학교 교장〉

청소년 교육이라고 하면 대개 비행청소년들의 행위의 문제의 선도를 중심으로 다루는 주제들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은 듯 하며 이러한 문제들은 상당히 자주 논의되어 온 것 같다. 행위의 문제의 원인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역시 주원인은 일상의 학업의 성공여부에 대부분이 있는 것을 부인 못할 것이다. 즉 학업에 충실하고 상당한 성취를 보이는 학생들은 행위의 문제가 적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문제가 많은 것은 이를 잘 이야기하는 예일 것이다. 물론 행위의 문제가 먼저냐 학업의 성취도가 행위의 문제를 가져왔느냐는 딱 잘라 말하기 어려운데가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자녀들로 하여금 일상의 학업에 충실하게 장려하여 둘 때 행위의 문제는 상당히 적어진다는 것은 경험의 많은 예로 알 수 있을 것이다.

성인이 되어서는 제각기의 생업에 몰두하듯이 젊은이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제각기의 학업의 과제를 가지며 상당한 시간과 정력을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보겠다. 학업이란 젊은이의 가장 중심적인 과제라고 보겠으며 또 그들의 관심사가 되고 따라서 모든 행위도 이 중심과제의 성취와 관계가 있다고 보아지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들의 큰 관심사인 청소년 교육의 논의가 한번쯤은 이들의 학업의 문제를 직접 다루는 어떤 것이 되어 마땅하지 않나 하는 것이 강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지나치는 단언이 될지 모르나 『학교성적은 젊은이에 있어서 모든 것의 중심』이며 학업성적의 직접적인 향상에 청소년 교육의 관심사를 돌려보아야지 않나 싶다.

학업에 성공하고 열의를 가지는 학생은 대개의 경우 계속해서 높은 의욕을 지속하며 연쇄적으로 성공을 이루어 가는 것이다. 따라서 대체로 비행에 접어들 기회가 작아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모

로서 자녀에게 할 수 있는 것의 첫째의 것이 있다면 이 학업의 성취도를 높이고 도와주는 것이라고 보아 좋을 것 같다.

따라서 중요한 사실은 학교에서 보내어지는 성적보고서를 유의하여 읽어보는 것을 절대로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된다. 미국의 교육제도에서는 국민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학기말 성적보고서를 합하여 1년에 4번의 보고서를 가정으로 보내고 있다. 어떤 학생은 고의로 이 보고서가 부모에게 당도되지 않도록 중간에서 중단시키기도 한다. 물론 이 정도가 되면 비행의 정도가 상당히 깊다고 보겠지만 어느 자녀치고 특별히 좋은 성적이 아니고는 자기의 성적표를 부모에게 보이는 것을 달갑게만 생각하지 않는 것을 이해될 수 있는데 성적표는 자신의 잘하고 못한 것을 기록하여 두고 있기 때문이다.

부모는 매번 보내어오는 이 성적표를 반드시 읽고 자녀와 같이 이야기하여 보아야 한다. 특히 자녀들의 성적이 전번에 비하여 떨어질 때는 「요주의」라고 보아야 한다. 혹 우연이나 특별한 사정으로 성적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성적이 낮아질 때는 꼭 자녀들의 생활에 그걸 방관되어서는 안 될 요인이 있다고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때 부모가 신중한 조치를 취한다면 많은 문제가 형성되기 전에 그 방향을 바로 잡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신중한 조치란 때를 놓치지 않고 잡는다면 간단히 취해질 수 있다. 자녀와 부모가 단둘이 조용히 앉아 성적표를 앞에 놓고 먼저 사실을 확인한다.

자녀들은 물질적인 증거를 제시할 때는 받아들이는 태도가 달라진다. 좋은 성적에 대하여 칭찬과 또 그같은 결과로서 부모를 기쁘게 하여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자녀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반면, 좋지 않은 성적

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부모로서의 염려를 분명히 하고 문제가 되는 점으로서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물어본다. 부모는 대개의 경우 무엇을 하여 주어야 하는지를 아나 일방적으로 보다는 자녀와 합의 아래 상호협조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물론 많은 자녀들이 이같은 조치를 싫어하는 것이 사실이나 적어도 부모가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점, 또 무언가 어떤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여 보는 기회는 반드시 문제의 요인들을 시정하는데 기여가 되는 것이다.

숙제를 도와주어야 한다고 하면 많은 부모들은 영어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니 어떻게 도와주느냐고 반문할 것이다. 사실 이것은 이민온 우리 부모들의 너무나 정확한 현실이다. 그러나 직접 과목을 도와주는 것 이외에 더 중요한 도움이 있는 것이다.

첫째, 숙제를 하도록 일깨워주는 것이다. 청소년들 중에는 아직 자기행동을 통제할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젊은이가 많아 숙제를 두고도 다른 일에 유혹을 받아들일 수 있다. 부모가 이 유혹을 끊고 자녀가 숙제의 책상에 앉게 하는 것만큼 중요한 도움이 어디 있겠는가?

둘째, 만일 할 수 있다면 숙제를 정성들여 완성하고 학교에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일깨워주는 것이다. 숙제에 좋은 성적을 얻으면 청소년들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른다. 그것은 그 다음에 또 잘하여야 한다는 의욕을 느끼게 하고 계속 진전시키는 요인이 되며 또 자신의 신뢰감에 큰 도움을 준다. 그 반면 숙제에 나쁜 성적을 받으면 그 실망과 분노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물론 어떤 학생은 이미 만성이 되어 그까짓 숙제점수가 아무런 자극을 주지 않는 데까지 자포자기된 경우가 많은데 그것도 하나하나의 숙제점수의 결과에서 연유된 영향의 누적된 것이 상당히 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하나하나의 숙제를 잘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간단하면서 소홀히 되는 점이다. 이러한 것은 작으면서 누적적으로 볼 때 그

영향이 적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있지 않을 만큼 하라고 생각하는 점들이다. 이런 일에 좀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그다음 문제는 시험을 잘 치루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부모나 자녀가 어디에 있는가고 반문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시험의 지옥이라는 한국에서 온 부모들은 시험의 교육적인 성격이나 중요성을 얼마간은 외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것은 이해가 된다. 그러나 시험에 좋은 결과를 보인다는 것은 학생의 지식이나 기술수준의 높은 것 이외에도 그같은 어려운 일을 하여 내는 인내심이나 지구력 또한 용기까지 이야기 할 것이며 또한 좋은 시험의 결과가 가져다주는 기쁨으로 엮여 형성된 자부심이나 행복감 같은 것들의 적극성 및 건전성은 계속적인 학업성적 향상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다.

시험은 정신적인 많은 압박감을 준다. 시험 때가 되면 자녀들 중에는 이러한 압박감 때문에 불안해하고 침착하지 못하며 의욕은 있으면서도 공부를 제대로 못하는 자녀들을 본다. 부모는 이러한 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첫째, 미리 준비시키는 일이다. 둘째, 철저히 준비하게 하는 일이다. 셋째, 시험의 성적을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자녀와 부모가 같이 인정하고 같이 일하여 보려고 하는 계획이다. 시험의 결과는 항상 중요하다는 것을 성공적으로 일깨워주는 것으로도 휴식에는 학업의 태도가 성숙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자녀가 시험에 좋은 성적을 얻을 때 얼마나 기뻐하고 그렇지 않을 때 얼마나 실망하고 창피하게 느끼는지를 안다면 부모들은 여기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알게다. 좋은 시험성적의 결과는 교사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된다. 자신의 신뢰감을 느끼게 한다. 또 다음 기회에도 더 잘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놓이게 한다. 인정감, 신뢰감, 책임감이 시험을 잘 치는 데서 온다고 할 때 그 교육적인 의미를 어떻게 경시할 수 있겠으며 여기에 부모가 무언가 하지 않으면서도 청소년 교육에 염려하고 있다고는 하기 어렵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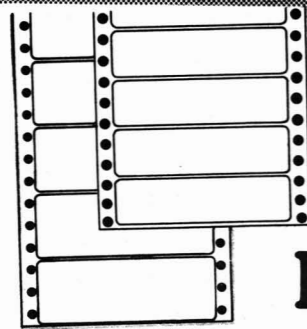
다음으로 언급하고 싶은것은 학업성취도는 젊은이들이 가진 지능의 정도, 지금까지의 지식 및 준비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습장에서의 적절한 태도 등에 좌우되어 결정될수 있다고 보아질수 있다. 이 중 전자의 지능의 정도 및 준비도는 당장에 어떻게 변화시킬수 없다 하더라도 후자인 태도에는 부모가 적절한 주의를 기울인다면 향상시킬수 있다고 보아지는 요인들이다.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은 교사를 존경하고, 교사에게 주의를 주는 이외의 잡담이나 다른행위를 삼가고 비교적 가르치는 내용의 중요성을 인정하려는 태도등으로 규정지을수 있다. 이같은 태도는 부모가 조금만 자녀들에게 끼쳐준다면 상당한 향상을 가져오는 것이다. 자녀들을 불러놓고 이러한 점들에 대하여 어떤 태도인지를 진정으로 물어보고 올바른 태도를 부탁하는것을 계속한다면 자녀들이 이러한 태도로 자신들을 못바꾸리는 극히 드문것이다.

부모의 자녀학업성취에 대한 계속적인 높은기대는 너무나 중요해 간혹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어요』하는 불평이 대부분의 비행 젊은이들의 입에서 토해지는 것쯤은 많은 부모들이 알고 계실것으로 안다. 물론 지나치게 간섭하고 소란케 하는 경우로서 젊은이의 질시가 되는 예가 없지 않으나 이것역시 그러한 기대를 어떻게 보이는가의 문제이지 기대 그 자체

가 나뉘었다고 생각하여서는 안된다. 특별히 강조하거나 이것만큼 중요한것은 없다 한다.

청소년 교육은 물론 많은 각도로 논의 되어야 할것이며 가까운 문제로부터 먼 곳의 문제를 두루 검토하여야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저 먼데에 있는 어려운 문제로만 생각하여서는 안될것이다. 그것은 바로 가까운데 있는 문제를 도와주는데서 해결될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우리 자녀들이 가지는 매일의 학교 교실에서의 수업에서 어떻게 임하고 있는가를 도와주는데서 결정적인 향상과 해결의 큰 실마리가 있다고 보지 않고서는 문제의 핵심을 포착지 못하는 오류를 벗어나기 불가능 할것이다. 1)자녀의 성적표를 검토하여 그것을 의논하며 2)평소의 숙제를 도와주며 3)시험을 잘 치루도록 태도를 지도하고 도와주며 4)수업의 적절한 태도를 지도하고 5)늘 큰 기대를 보이며 적절히 자녀에게 알려주는것 등은 바로 눈앞에서 요구되고 있는 일로 다반사와 같으면서도 잘 실시치 않는것 들이다.

학업성취도를 얼마나 향상시키는가를 상상하여 보며 학업의 성취가 향상될때 우리 자녀교육의 많은 문제점이라고 하는것들이 해결된다는 면을 좀더 숙고하여 보자.



컴퓨터 MAILING LABEL

본 회보를 우송하는데 사용한 computer mailing label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주소로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별 혹은 zip code 별로 분류하여 제공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처: P.O. Box 55564
Seattle, WA 98155
전화: (206) 775-1682

Live the good life.
THE EQUITABLE

장래를 위한 대책은 마련하셨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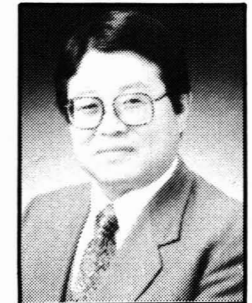
- 좋은 보험은 재정안정의 열쇠입니다 -

- 노후대책 ○자녀교육 ○퇴직준비
- 가족보호계획을 각자의 사정에 맞게 세워드립니다.

믿을수있는 세계굴지의 에퀴터블 보험

THE EQUITABLE Financial Services

Tacoma Mall Office Bldg. #425
P.O.Box 11309 Tacoma, WA 98411-0309



박건홍

Bus : (206)475-5353(Tacoma)
(206)838-9218(Seattle)
(206)527-8094(Seattle)

○통역 ○법률보조 ○서류작성
K.P. Translation Services

K.P 번역원

*가장 효과적으로 언어문제를 도와드립니다

5233 15th Ave NE #201 Seattle, WA 98105
(206)522-7179

●총영사 송별회

한인회와 평통자문위원회에서는 87년 2월13일 한일각에서 총영사 송별식을 가졌다. 이날 80여명이 참석하여 석별의 정을 나누었다. 오계희(전한인회장)씨의 사회로 윤광남 한인회장, 신호범 평통지회장의 송별사가 있었다.

●김동길 교수와 좌담회

한인회에서는 1월24일 12시 신라식당에서 김동길 교수를 모시고 통일, 교회, 이민사회에 관하여 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한인회장(윤광남), 이사장(고봉식), 총무(윤홍남), 제일장로교회 김성목 목사, 정병국씨, KOAM TV 고종제씨가 참석하였다.



●인컴택스 보고 무료봉사

한인회에서는 87년 2월3일, 10일 양일간에 걸쳐 한인회 사무실에서 김용철 CPA, 손기남 CPA가 수고하였다. 교민들의 이용이 많이 있기를 기대한다.

●노인회 방문

윤광남 한인회장, 고봉식 이사장, 윤홍남 총무, 김원주 목사는 87년 2월6일 노인회를 방문하였다. 이날 회장과 이사장의 인사가 있었고 총무의 사업설명이 있었다. 한인회에서는 적은 선물을 전달했다.

●3.1절 기념식

본 한인회에서는 3.1절 기념식을 87년 2월28일 오전10시에 갖는다. 교민여러분의 많은 참석 있으시기를 바란다.



●목사님과 간담회

한인회에서는 2월23일(월) 12시 오토라에 위치한 Kings Table 에서 목사님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역대 이사임원 합동회의

한인회에서는 87년 3월21일 오후6시 역대 이사임원 합동회의를 갖는다.

한인회 소식

●신년하례회 성료

씨애틀 워싱턴주 한인회와 씨애틀 총영사관, 기독교 연합회 공동주관으로 지난 1월1일 오전8시부터 씨애틀 한인장로교회에서 총영사 및 지역지도자들과 교민 150여명의 내객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하례회가 거행되었다.

3부로 나뉘어진 본 행사에는 1부 조찬기도회, 2부 각 단체장들의 신년사와 3부 씨애틀 한인장로교회에서 마련한 떡국을 들며 각 단체의 임원소개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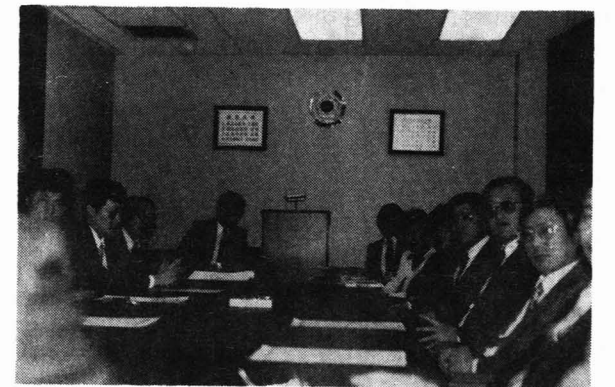


●의료상담

한인회에서는 87년 2월11일 한인회 사무실에서 백기완 전문의(한인회 이사)를 모시고 의료상담을 실시하였다. 교민들의 많은 이용이 있기를 바란다.

●영사관 방문

씨애틀 한인회 이사 및 임원일동은 1월20일 오후5시 총영사관을 방문, 안세훈 총영사의 영접을 받고 87년도 한인회 사업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상호지원 및 협조의 건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특히 이 자리에서 한국의날 행사에 관한 문제와 올림픽 후원에 관한 사항등을 논의하였다.



●이사보선

●한인회에서는 87년 2월8일 고봉식 이사장택에서 이사회트 가졌다. 이날 부족한 이사를 보선하였는데 명단은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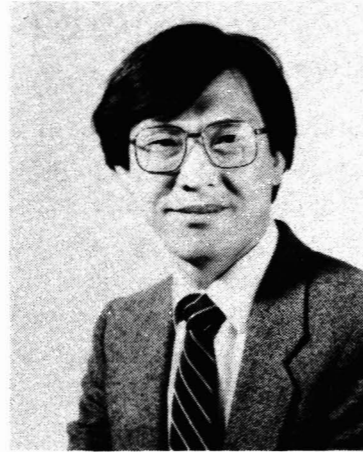
- 이사장 고봉식
 이 사 윤광남, 박태호, 민학수, 백기완, 백웅기, 신응호, 권태원, 한원섭, 과종세, 윤학덕, 윤상인, 김학남, 박춘석, 이정섭, 성동민

인캅텍스 보고요령

- 공제에 관한 사항들 -

- 편집자주 -

공인회계사 이석주씨는 University of Washington 에서 경영학 석사(MBA)를 받은 후 미국 8대 공인회계사인 Peat, Marwick, Mitchell & Co, New York Office 에서 감사 및 세무방면의 일을 해오다가 1986년 2월부터 South Center 에 개인 공인회계사무실(LEE & ASSOC., CPA)를 운영하고 있다.



공인회계사 이석주

● 총수입에서의 공제(주요내용)

이사비용 : 이사비용을 공제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새로 일하는 직장에서 전에 살던 집까지의 거리가, 전에 일하던 직장에서 전에 살던 집까지의 거리보다 35마일 이상이 더 많아야 하며

둘째, 직장생활자의 경우 이사한후 일년동안 적어도 39주이상 직장생활을 하거나 자영사업자의 경우 이사한후 2년동안 적어도 78주이상을 자영사업에 종사해야 한다.

운임비, 여행비, 음식비용, 숙박비 등 직접적으로 관계된 비용은 모두 공제가 되며 간접적 비용은 공제에 제한을 받게 된다. 이사를 하기위해 미리 집을 보러 다니는데 쓴 여행비, 숙박비, 음식비 등과 직장을 구한후 집을 정하지 못해 임시적으로 든 생활비는 모두 합해 \$1,500(부부 합동보고)까지 공제가 되며, 임대계약을 해약하거나 체결하는데 든 비용도 공제가 되지만 모든 간접적 비용은 \$3,000(부부 합동보고)까지가 상한액이 된다. 이사비용은 1986년도 보고까지만 직접 총수입에서 공제되지만 1987년부터는 개정세법에 의해 항목별 공제대상이 된다.

● 개인은퇴구좌(IRA) 기여금 : 1986년도까지는 수입수준 및 직장퇴직제도 혜택의 유무에 관계없이 \$2,000이나 근로소득중적은 금액을 IRA 구좌에 적금함으로써 공제혜택을 볼수 있다. 부부중 한사람만 일하고 근로소득이 \$2,250을 넘을때는 \$2,250까지 기여할수 있으며, 부부 모두 일할때는 \$4,000까지도 가능하다. 4월 15일 이전에만 적금하면 공제혜택을 볼수 있다.

이 제도는 1987년도부터 변화되어 직장연금혜택을 받는 납세자의 경우는 부부 합동보고인 경우 조정된 총수입이 \$40,000까지는 1986년도와 같은 혜택을 볼수 있으나 \$40,000이 넘을때는 점점 줄어들어 \$50,000에서는 공제혜택이 없어지게 된다.

\$45,000일 경우는 최고 \$2,000까지 공제 가능하다. 직장연금혜택을 받지 않는 자영사업의 경우에는 앞으로도 변화가 없게 된다.

외판원 및 미환급사업비용 : 여행비, 출장비, 접대비 등 직장을 위해 개인의 경비를 쓴 경우, 대부분은 회사에서 환급(reimburse)을 해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것이다. 예로 개인자동차를 회사를 위해 운행하게 되면 대부분 회사는 마

일에 비례해서만 지불을 한다. 이 경우 실제로 나간 가스비, 수리비, 보험비, 감가상각비 등을 합치면 회사에서 받는 환급보다 크게 되므로 개인세무보고시 그 차액을 공제할수 있다. 여행비, 출장비 등이 아닌 고용에 관계된 경비(예로 유니폼, 조그만 장비품, 작업시 요구되는 구두, 작업복 등)은 항목별 공제대상이 된다.

1987년부터는 위의 모든 경비들을 합쳤을때 조정된 총수입의 2%의 넘는 부분만 항목별 공제대상이 된다. 또한 접대비(Meals & Entertainment Expenses)는 실제경비의 80%만이 항목별 공제에서 고려될수 있다.

맞벌이 부부소득공제 : 각 부부의 근로소득에서 미환급사업비용이나 개인은퇴구좌 기여금을 뺀 금액과 \$30,000을 비교해 가장 작은 금액에 10%를 곱한 금액을 공제할수 있다. 예로 Mr. A가 \$50,000의 사업소득이 있었고, Mrs. A는 \$20,000의 월급을 받았으며, 각각 IRA 에 \$2,000씩을 적금했다면 A씨 부부는 합동보고시 \$1,800을 공제할수 있다.

이 맞벌이 부부소득공제는 개정세법에 의해 1987년도부터 폐지되어 1986년도 세무보고에서 마지막 혜택을 볼수 있다.

● 항목별 공제

항목별 공제를 구성하는 주요항목들은 의료비, 이자, 세금, 기여금, 절손비, 기타 잡비 등으로 되어 있다.

의료비 : 납세자 본인,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을 위해 쓴 경비만이 공제대상이 된다. 처방된 약품값, 의사 및 간호비용, 의료보험료, 안경알, 의치, 앰블런스 비용, 파킹료, 자동차 여행비 등을 합한 금액에서 조정된 총소득의 5%을 뺀 금액만이 다른 공제항목과 합쳐져 총 공제금액에 이른다.

예로 조정된 총수입이 \$10,000이고 각종 의료비로 \$700을 지출했을 경우 \$200(\$700~\$10,000X5%)만이 다른 항목별 공제들과 합쳐질수 있다. 1987년부터는 조정된 총소득의 7.5%를 넘는 부분만 공제될수 있게된다.

이자 : 1986년도 세무보고시 항목별 공제혜택 대상이 되는 이자비용은 다음과 같은 비사업용 이자(또는 소비성 이자)이다.

주택모기지이자 : 대부기관에 지불한 이자와 개인에게 지불한 이자는 각각 다른항에서 보고되며, 개인에 지불한 경우 수령자의 주소와 이름을 적어야 한다. 집을 사거나 증축하는데 관련하여 생긴 론포인트(loan points)도 공제가 가능하다.

자동차 구매대출금 이자, 크레딧카드 이자 : 이 이자들도 공제가 가능하나 그러나 서비스 charge나 론 비용등 서비스 성격이 있는것은 공제가 안된다. 세금미납액에 대해 부과되는 이자도 공제가 가능하며 penalty 는 공제할수 없다. 사업용 이자에 대한 공제는 항목별이 아닌 사업의 비용으로 schedule C에서 공제하게 된다. 1987년부터는 이 이자공제에 대한 세법이 많이 바뀌게 되어 이자공제의 혜택에 많은 제약을 받게된다. 주택 모기지 이자는 최고 2채의 주택구입에 사용된 대출금 이자에 한하여 공제가 허용된다. 이때 대출금은 주택구입과 증축수리비를 초과할수 없다. 이 규정에는 두개의 예외사항이 있는데, 첫째는 1986년 8월 16일 이전에 대출금이 일어났고 그 빚이 주택의 현시세를 초과하지 않을때, 둘째는 초과대출금이 의료비나 교육용으로 쓰였을 경우에 계속 이자를 공제할수 있다. 모기지 이자가 아닌 다른 소비성 이자들은 1987년부터 점차적으로 공제 제한을 받아 1991년부터 전혀 공제혜택이 없다. 공제 제한이 매년 다음과 같이 늘어나게 된다.

1987년도 65%만 허용
1988년도 40%만 허용
1989년도 20%만 허용
1990년도 10%만 허용
1991년도 허용안됨

세금 : 공제대상이 되는 세금은 주나 지방정부에 낸 사업용이 아닌 세금으로서 재산세, 주와 지방소득세, 세일즈택스 등을 포함하고 있다. 사업에 관련되어 낸 세금은 그 사업에 해당되는 schedule C 또는 F에서 공제하게 된다.

세일즈택스를 공제하는데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IRS 에서 제공하는 해당도표에 의거하여 수입수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과 둘째는 실제로 모든 지출의 영수증을 보관하여 세일즈택스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 둘째방법은 일의 번거로움을 수반하게 되겠지만 실제 지출한 세일즈택스가 도표에 의해 계산된 세일즈택스보다 많을 경우가 있기때문에 시도할 가치가 있는것이다. 자동차나 보트 등에 대해 지불한 세일즈택스는 별도로 공제대상에 합산된다. 자동차의 가치에 따라 청구된 차량등록비는 세금으로 공제될수 있으나 운전면허비용등은 공제가 안된다. 1987년부터는 세일즈택스 공제가 전면적으로 철폐되게 된다. 세일즈택스가 많고 주나 지방소득세가 없는 Washington주의 주민들은 연방세법상 불리한 입장에 있게되므로 앞으로 세일즈택스를 줄이고 주 소득세제도를 수립하려는 입장에 지지를 많이 보일것으로 예상된다.

현금 : 인가가 되어있는 교회 및 자선단체에 기부한 현금이나 물품은 항목별 공제대상이 된다. 그 단체를 위해 자동차를 써야 했을 경우는 마일당 12센트나 실제 개스비, 파킹요금 등을 공제할수 있다.

어느 한 단체에 \$3,000이상을 기여했을 경우는 그 금액과 단체를 따로 표시해 보고해야 한다. 물품은 \$500이상 기여했을 경우에는 그 명세에 대해 보고하는 양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물품을 \$5,000이상 기여했을 경우는 가치에 대한 감정서를 증빙으로 보관하여야 하며 세부적 명세를 보고하는 양식을 첨부해야 한다. 다른 항목별 공제사항이 적어 항목별 공제혜택이 결국 없게되는 납세자는 현금의 경우에 한해 그 을 직접 조정된 총수입에서 공제할수 있다. 예로 교회 현금만 \$1,000을 했고 나머지 이자나 의료비 세금등의 경비가 거의 없어 항목별 공제혜택이 없게되는 사람은 \$1,000을 직접 조정된 총수입에 공제할수 있게 된다.

1987년부터는 이 혜택이 철폐되게 되며, 오직 항목별 공제를 통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위의 예가 1987년에 있었다면 1988년에 1987년도 세금보고 할 경우는 \$1,000

을 공제할수 없게 되는 것이다.

절도 및 불손실(Casualty and theft losses) : 절도에 의한 피해나 화재, 폭풍 등과 같은 불손실을 공제하는데는 그 손실이 사업성이나 비사업성이나에 따라 다르게 된다. 개인적(또는 비사업성)손실인 경우 공제대상이 되는 금액은 손실을 전후로한 가치의 차이와 그 물건의 조정된 기초금액을 비교해 작은것을 쓰게된다. 이 금액에서 \$100을 빼고난 금액이 조정된 총수입(AGI)의 10%를 넘는것만 항목별 공제가 된다. 일반적으로 여러종류의 사항이 관련되어 있고 보험의 보상이 있었다면 계산과정은 보다 까다로워지게 된다.

잡비(Miscellaneous Deductions) : 잡비의 내용은 여러가지 공제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현 직장에서 요구되는 기술을 유지하거나 증진시키기 위해 쓴 교육비는 공제 가능하지만 다른직업에서 요구되는 수준을 맞추기 위해 쓰는 비용(예로 보험회사 대리인으로 일하면서 변호사가 되려는 목적으로 법대에서 공부하는 비용)은 공제할수 없다. 현재의 직업과 같은 계열의 직업을 찾기 위해 쓴 여러비용도 공제 가능하다. 그러나 첫번째 직장을 얻기위해 쓴 경비는 공제할수 없다. 투자에 관계되어 부수되는 경비는 공제 가능하다. 예로 투자상담비, 금고유지비, 렌트비, 소모용품비가 있다. 세무상담이나 세무보고로 인한 경비도 공제 가능하며, 조합(Union)이나 상공회의소에 내는 회비도 공제대상이 된다. 직장의 요구에 의해 입어야 하는 유니폼비, 보호용 신발, 모자 또는 연장등의 비용도 공제대상이 된다. 1987년부터는 조정된 총수입(AGI)의 2%가 넘는 부분만 항목별 공제가 가능하게 된다.

해당되는 항목별 공제금액을 모두 더해 일정금액(전에 언급되었음)을 뺀 금액이 조정된 총수입(AGI)에서 순수하게 뺄수있는 금액이 된다. 1987년부터는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이 항목별 공제를 하기가 힘들게 되었다. 이 이유는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공제대상을 줄이거나(예 세일즈택스, 이자)공제될수 있는 금액을

줄이면서(예, 의료비 경우 AGI의 7.5%가 넘는 부분만 공제될수 있으며, 잡비는 AGI의 2%가 넘는 부분만이 공제될수 있음) 여기에 「그 어떤금액」의 한도를 높이기 때문이다. (예로 1987년에 그 금액은 부부합동보고일 경우 \$3,800으로 되며 1988년부터는 \$5,000이 된다. 1986년에는 \$3,670이다) 여기서 언급하는 「그 어떤금액」이란 미세무구조의 복합성을 더해주고 있는 것이어서 세부적인 설명은 회피하려 한다.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

인적공제는 문자 그대로 두당공제를 의미하며 1986년도 경우는 두당 \$1,080이다. 이 인적공제는 개정세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증가하도록 되어있다.

년도	기혼자	독신자
1987년	\$1,900	\$1,900
1988년	\$1,950	\$1,950
1989년 이후	\$2,000	\$2,000

부부합동보고를 하며 부양가족이 2명인 경우에는 \$4,320(\$1,080X4)을 공제할수 있게 된다.(1986년도를 위한 세무보고시) 1987년도를 위한 세무보고시는 \$7,800(\$1,950X4)를 공제할수 있을것이다.

●소득세 계산(Tax Computation)

총수입에서 「총수입에서의 공제금액」, 「초과항목별 공제금액」, 그리고 「인적공제금액」을 빼고 최종적으로 남은것이 과세금액(Taxable Income)이다. 과세금액에서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세금표를 보는 방법, 세율표를 보는 방법, 그리고 소득평균법에 의한 방법이 있다. 세금표나 세율표에 의해 계산하는 것은 결국 같은 결과의 세금금액을 구하게 될것이다. 소득평균법은 소득이 과거년도에 비해 많이 증가했을때 꼭 시도할 가치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큰 혜택을 주게된다. 1987년부터는, 이 방법은 개정세법에 의해 폐지되므로 올해가 시도할수 있는 마지막 해가 될것이다.

●소득세 크레딧

개인의 경우 대표적인 소득세 크레딧

은 자녀부양 크레딧(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이다. 예로 15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고 근로소득이 있으면 일을 해야되기 때문에 일어난 부양경비(예로 Day Care 비용, 베이비 시팅 비용)에 대해 세금감면을 해주는데, 그 실제 감면혜택은 근로소득 및 조정된 총수입에 따라 20%에서 30%의 실제비용이 된다. 예로 근로소득이 \$8,000이고 조정된 총수입이 \$12,000이고 부양경비가 \$2,000이었다면 \$2,000의 29%에 해당하는 \$580이 세금감면 금액이 된다. 한자녀당 부양경비는 \$2,400을 초과시키지 못하며 두자녀 이상이라면 최고 \$4,800까지이다. 또한 이 금액들은 근로소득에 제한을 받게된다.

투자감세크레딧은 몇몇 예외조항이 있지만 1986년 1월1일부로 소급철폐되었다. 개정세법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에게 준 불리한 개정항목으로 간주할수 있다.

●다른 세금들

사업체를 운영함으로써 생긴 순수익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세(FICA)를 내야한다. 이 세금은 순수익의 12.3%에 해당하며 \$400에서 \$42,000의 순수익까지 대상이 되므로 최고로 \$5,166(\$42,000X12.3%)이 된다. 예로 그로서리를 해서 \$10,000의 순수익이 있었다면 \$1,230(\$10,000X12.3%)가 사회보장세로서 계산된 소득세에 합쳐지게 된다. 순수익이 \$11,000까지 이룰때는 수입정도에 따라 근로소득면세(Earned Income Credit)의 혜택을 받을수 있게된다.

●이미 낸 세금들

1986년 동안에 미리 낼수 있었던 세금으로는 직장에서 고용으로 일하는 경우 고용자가 거두어서 국세청으로 보냈던 세금(Income Tax Withheld)이 될것이고 자영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4번에 걸쳐 나누어 냈을 예납세금(Estimated Tax Payments)이 될것이다. 직장에서 일하는 경우는 고용주에 W-4 를 제출할때 세금공제에 대한 지시를 주게된다. (결혼의 여부, 인적공제의 수) 자영사업자는 자기 스스로 일년의 순수입을 예상해 4월 15일, 6월 15

일, 9월 15일, 1월 15일까지 4번 거쳐 나누어 내게 된다.

세금을 미리 안내했을때 어떤 일이 있게 되는가. 1986년 세무보고에 대해서 세법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전년도의 세금액이나 1986년 실제세금의 80%중 낮은 금액을 미리 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벌과금(penalty)를 내야될것이다. 1987년부터 이 규정이 보다 까다로워져 80%에서 90%로 증가하게 된다.

●세무보고를 하면서 염두해야할 사항들

1. 글씨를 알아볼수있도록 쓸것.
2. 해당숫자가 해당 라인(line)에 있도록 쓸것.
3. IRS 가 승인한 양식을 사용할것.
4. 주소및 인적사항란에 가능하다면 IRS 에서 보내준 label를 부착하고 IRS에서 보내준 봉투에 넣어 보낼것. 이는 IRS 의 사무처리상 실수를 줄이게 하고 처리속도를 증가시켜줄수 있음.

5. 세무양식의 오른쪽 상단에 있는 번호 (1986년 밑에 있는 조그만 숫자)순서대로 철해보낼것.

6. 수표 지불란에 IRS 라고 하지말고 Internal Revenue Service 라고 쓰고 수표상단의 여백에 social security number를 적어 넣을것. IRS의 사무착오를 막을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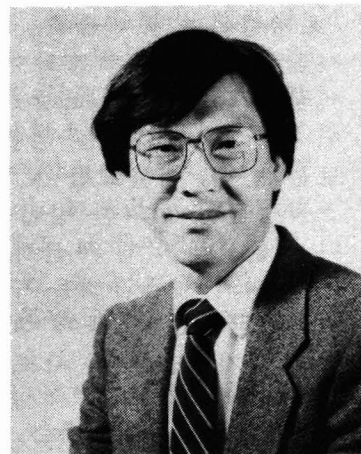
7. 세무보고양식에 서명란에 반드시 서명할것. 부부합동보고이면 둘다 서명할것.

세무보고의 내용이 복잡하고 다양하면 할수록 요구되는 지식과 능력도 증가하게 된다. 이에 대한 조언과 상담 및 실제 세무자체를 전문가에게 의뢰하는것은 마지막 절세의 방법이 될것이다.



공인회계사 이석주

- 개인 및 법인세무
- 세무계획 및 상담
- 재정계획 및 투자상담
- 시스템 상담
- 경영자문 및 장부정리
- 재무제표 작성
- 감사대행



LEE & ASSOC. CPA

Andover Executive Park

601 Industry Dr. Tukwila, WA 98188

(206) 575-0950

영스유리 (창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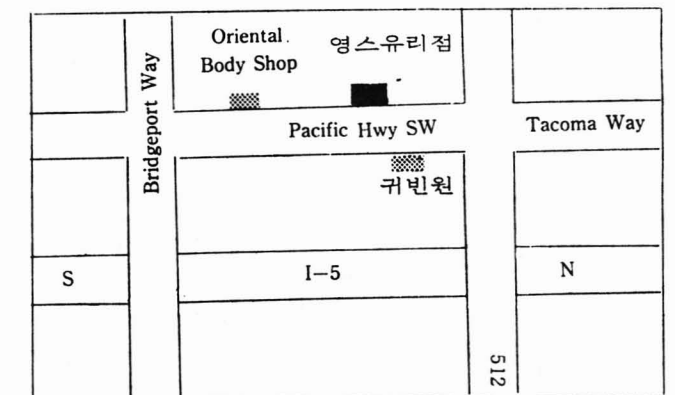
Bonded Const Yongs G 141 CF

- 무료견적, 보험
- ENERGY 절약에 대한 상담
- 출장수리
- OLD HOUSE 창문교체, 각종유리 취급
- 계약분할지급
- STORE REMODELING

- 2중창 (STORM DOOR)
- 2중 유리창(INSULATED WINDOW)
- PATIO DOOR
- SHOWER DOOR
- 철창살(WINDOW GUARD)
- STORE FRONT(가게출입문)
- 옷장 거울문(CLOSET MIRROR)
- GREEN HOUSE
- SCREEN (방충망)
- TABLE TOP
- SKY LITE
- 각종 거울, 진열장 맞춤, 유리선반
- 실내장식 (STAINED GLASS, SAND BRUSH GLASS)

* 10 years guaranty

582-8126 (B)
473-3292 (R)



11536 Pacific Hwy SW Tacoma WA 98499

사치성 경쟁

김 준

지금으로부터 약8년전 내가 이민길에 오르기직전, 해외나들이를 많이 하는 어른 한분이 미국 이민생활에 도움이 될만한 몇가지 조언을 나에게 해주셨습니다. 그중의 하나는 미국에 사는 한인교포들 중에는 경제적으로 서로 잘사는 경쟁에 물두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경쟁에 휘말리지 말고 비록 부유하지는 못하다해도 어떻게 사는것이 값있고 행복한 삶인가 하는 모범을 보여줘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그때 그분의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읍니다. 왜냐하면 그리 풍요롭지 못한 나라에서 잘사는 나라를 찾아온 처지에 의식주의 문제가 어느정도 안정이 되고 생활의 여유를 얻게 되었다면 그 얼마나 다행스럽고 고마운 일이겠습니까. 이제 그 수입이 생활선을 웃돈다해서 서로 잘사는 사치성 경쟁에 마음을 쓴다는것은 생각할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서울에 있을때 어느 공원에서 본 일입니다. 월남에서 온 젊은 남녀 몇사람이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반들반들하게 윤이 나는 복장에 다 평장히 값진 카메라를 모두 하나씩 들고 회회낙낙하며 이곳저곳에서 사진들을 찍고 있었읍니다. 그들의 의복이나 장신구들이 어쩌나 사치스러운지 행인들이 발길을 멈추고 얼마동안 그들을 바라보고 있을정도였읍니다. 나는 그들의 모습을 볼때 무어라 표현하기 어려운 착잡한 마음에 사로잡혔읍니다.

그들이 미국이나 구라파의 어느 잘사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었다면 또 모르겠읍니다. 그렇시 월남은 전쟁중으로 국가 존망의 위기에서 세계각국에 군사경제의로 등의 원조를 호소하고 있을때였읍니다. 수년간의 전화속에서 집을 잃고, 남편을 잃고, 부모를 잃은 전쟁 미망인과 고아들의 처절한 모습이 보도를 통해서 전세계에 전해지고 있을때였읍니다. 당

시의 월남실정을 알고있던 사람치고 어느누가 그 사치스런 젊은이들의 모습을 바로보아 줄수가 있었겠습니까? 「고」씨인지 「풍」씨인지 알수없는 그들의 가정만은 대부호였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외국인들의 시각에는 그들이 「고」씨나 「풍」씨로 평가되지는 않았읍니다. 오직 「월남인」으로 평가될뿐이었읍니다. 우리나라의 실정을 몰이켜볼때, 6.25 당시의 우리조국에 비한다면 오늘날의 한국이 얼마나 경이로운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었습니까. 생각하면 어깨가 으쓱하고 가슴이 뽕뽕함을 여제할수 없는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냉철하게 우리조국의 현실을 살펴보면 결코 자랑스러운 면만을 보게되지는 않았읍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실태는 어떻습니까. 이웃나라들은 모두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국민학교만을 겨우 마치고는 잘질플라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선진국의 학교같으면 몇개의 반으로 나뉘어질 많은수의 학생들이 한교실에 모여 복잡대는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것입니까. 대도시마다 큰병원들이 즐비하지만 그 병원들의 혜택을 받을만한 여유를 갖지 못하고 사는 빈두리 빈민들이 적지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얼마나 많은 농어촌민들과 도시주변의 영세민들이 균형있는 영양을 얻지 못한채 건강을 잃고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우리조국의 현실이 결코 만족스러운 처지에 있다고는 볼수가 없을것 같습니다.

이러한 생각에 잠겨있던 어느날, 우리 가계에 전부터 잘아는 한 중년 미국부인이 찾아왔읍니다. 내가 한국인임을 알고 있는 그녀는 자기의 큰 딸이 얼마전에 한국에서 두명의 고아를 입양해왔는데, 그 애들이 대단히 예쁘고, 똑똑하고, 순하고 또 건강하다고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한

참 사랑을 늘어놓았읍니다. 나는 그 부인의 말에 무어라고 응대를 해야할지 몰라 잠시 망설였읍니다.

『네, 흠읍니다. 우리 한국의 고아들은 다른나라의 고아들보다 인물이나 체질면에서 훨씬 우수합니다』라고 할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윈, 별 파찬의 말을 씬을 다하십니까』라고 하기도 쑥스럽지 않습니까. 결국 내가 한말은 『감사합니다. 한국의 그 불쌍한 고아들을 멀리 이곳까지 데려다가 양육하신다니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밖에는 할말이 없었읍니다. 그때 그렇게 말하는 내 자신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가난하고 무능한 부모가 자기자식을 돈많은 아주머니한테 떠맡길때 느끼는 심정같다고나 할까요. 심한 부끄러움과 야릇한 죄책감에 어찌 할바를 몰랐읍니다.

만일 그때 그 부인이 나의 모습에서 어딘가 사치스러움을 발견했다던가, 무절제한 낭비를 보았다던가, 부를 과시하는

어떤 거드름 같은것을 느꼈다고 하면, 오래전 내가 한국의 어느공원에서 월남의 젊은이들을 보았을때의 그 심정과 얼마나 큰 차이로 나를 보았을까요.

그렇습니다. 부끄럽기는 하지만 우리 조국은 아직도 우리땅에서 태어난 생명들을 스스로 책임지기 어려울만큼 나약한 면이 있음을 부정할수가 없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땅에서 우리의 부를 외국인앞에 마음껏 과시하고 싶은 충동을 아직은 자제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피땀흘려 번 수입을 만에 하나라도 무모한 사치성 경쟁에 허비한다고 하면 그것이 조국과 민족앞에 얼마나 죄스러운 일인지를 또한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아직도 우리의 생활에 남은 여력은 화려한 생활에 아닌 조국의 발전에 좀더 기여되어야 한다고 재삼 느끼면서 8년전에 받은 조언을 여러분들과 함께 되새겨 보고 싶었읍니다.

투 종합보험 Airstate®



- 차 보 험
- 사업보 험
- 용자알선
- 생명보 험
- 교육보 험
- 가옥보 험
- 건강보 험

362-2692 사무실
672-7884 자택

* 언제나 신뢰하고 믿을수 있는
규차명 종합보험
규영명 종합보험

12708 Lakecity Way NE Seattle, WA 98125

8월	정기임원회 Sea Fair 행사 한국의날 행사(광복절 기념식 포함)	8월 8일
9월	정기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무료진료 한인회 정관선거 및 수정위원회 구성 회보발간	9월 12일
10월	정기임원회 입후보 등록마감 총회공고 무료진료	10월 10일
11월	정기임원회 불우이웃돕기(식사대접) 정기총회 아리랑의 밤 행사준비계획 무료진료 양로원 방문 회보발간	11월 14일
12월	정기임원회 아리랑의 밤 행사 회보발간	12월 12일

에버렛 한인교회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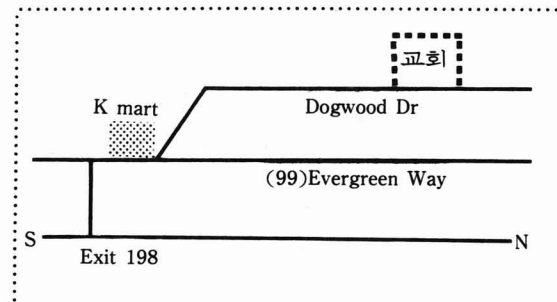
=집회안내 =

주일낮예배 오전 11시
 주일오후예배 오후 1시 30분
 수요일예배 오후 8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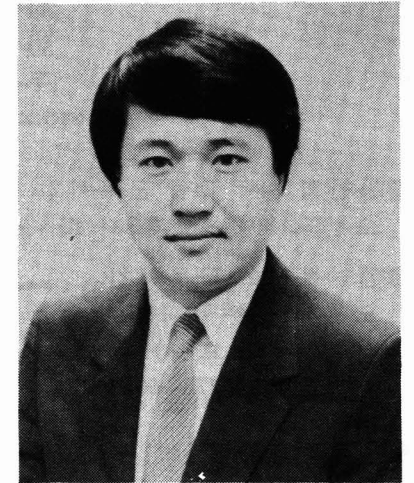


4800 Dogwood Dr
 Everett, WA 98203

전화 : 교 회 258-1833
 목사관 347-7266



김응철 공인회계사



취급업무

- 개인 및 법인세무업무
- Computerized Accounting & Bookkeeping
- 각종 재무제표 작성
- 경영자문 및 세무상담
- Financial & Tax Planning
- 투자상담
- 회계감사

경 령

- Coopers & Lybrand, Audit & Tax dept 근무
(미국 Big 8 의 하나)
- SK Corp Consulting Accountant
- Univ of Washington MBA
- Univ of Washington Accounting BA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 경기고등학교
- AICPA Membership, Wash Society of CPA's
- America Korea Trade Club Membership

363-5730

778-6440 (집)

Metropolitan Bldg Suite B
 11065 5th NE Seattle, WA 98125

씨애틀 워싱턴주 한인회 업무안내

1987년을 맞이하여 교민여러분 가정위에 행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번 한인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교민을 위한 한인회 업무를 실시하오니 본 한인회 사무실을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한인회 사무국장 근무시간
오전 9시 30분~오후 3시(화~토)

●한인봉사회 근무시간
오후 2시 30분~6시 30분
(매주 금·토요일)
정인호박사(778-6984)

●무료의료상담
매월 두번째 수요일
(2월 11일, 3월 11, 4월 8일, 5월 13일, 6월 10일)
Dr. 백기완(백기완 의료원)
365-4533(병원), 367-0936(집)
Dr. 김순희(성심의료원) 542-7606(병원)

●Income tax return 무료봉사(short-form)
오후

2월 3일(화)4시~8시	김용철 공인회계사
2월 10일(화)4시~8시	손기남 공인회계사
2월 17일(화)4시~8시	이규영 계리사
2월 24일(화)4시~8시	이석주 공인회계사
3월 3일(화)4시~8시	허 신 공인회계사
3월 10일(화)4시~8시	김용철 공인회계사
3월 17일(화)4시~8시	손기남 공인회계사
3월 24일(화)4시~8시	이규영 계리사
4월 7일(화)4시~8시	허 신 공인회계사



★ 한인회비를 납부하여 우리교포사회 상부상조 합시다.
★ 회비는 가족당 \$20.00



TV·VIDEO·STEREO
수리전문

27년 경력 구연기

15200 AURORA AVE
K-TV·VIDEO 364-2121

시(詩)

「그대」

서정애

가장 정직한 그대언어는
눈빛,
최초의 말씀들이 빛으로 새기어지는 아침.
맞잡은 바른손 체온이 발끝 모세혈맥을 차 내리인다.

가장 눈부신 그대 고백은
이마,
손거울마냥 내리어보는 깨끗한 감동이,
저녁빛 물지는 부끄러움으로 새로이 영혼을 옷입힌다.

가장 소중한 내 기도는
미소,
안으로하여 교육찬 대지의 햇빛으로,
그대 등뒤를 누운 그림자 지운다.

가장 빛나는 내 이름은
그리움,
한 땀씩 범그는 봉우리 닮아
늘 그대 다가서는 긴 개화.

동양식품잡화도매



Oriental Merchandise Supply Co.

GENERAL MERCHANDISE, FOOD, SUPPLIES, SEAFOOD, GIFTWARE

- 각종 동양식품 일체
- 해산물, 어류
- 선물용품
- 일반잡화

SEATTLE (206) 838-2684

TACOMA (206) 952-2379

TELEX : 15-2087 'LUCKY LEE' FEDW

CABLE : 'LUCKY CHANG' FEDW

P.O.Box 3253 Federal Way, WA 98003

서 이미 벌어난 돈이 또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은 세가지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000불 투자했을 경우 첫째가 이 10,000불의 값이 오르는 경우(성장목적)이고 둘째가 이 10,000은 큰 변동이 없고 이 10,000불을 이용하여 이자를 받는 경우(이자목적)이며, 셋째는 이 10,000도 좀 오르고 또한 이자도 약간 얻어낼수 있는(total return)경우 이렇게 세가지라 볼수 있다. 또 다른방법이 있겠는가? 둘째의 대표적인 경우가 은행이자라고 할수 있겠다.(다음호 계속)



편집후기

이젠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좋은 날이 계속 되려나 보다. 교민사회에도 좋은날의 연속이었으면 좋겠다.

독자들이 기다리는 회보를 만들기위해 우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글을 실어보려고 노력했다. 일을 하면서 여러가지로 미숙하고 부족한점을 더욱 발견하게 되었다.

다음호에는 더욱 분발할것을 다짐하며 교민들의 격려와 참여를 기다린다. 이번호에 함께 편집에 도움을 주신 김원주 목사님께 감사드린다.



장여행사

CANDC TRAVEL SERVICE

- 성지 관광
- 국내외 항공권 판매 서비스
- 여권갱신업무 취급
- 각종 비자연장 ○이민·시민권
- 친지, 상용, 유학, 호적등본, 재정보증서

* 공항 자동차업무
(pick up service)

시애틀지역내 : \$20.00

시애틀지역외 : \$30.00

523-7057 ○IATA(국제항공운수협회)공인대리점

527-2245 ○ATC(미국항공운수협회)공인대리점

10212 5th Ave NE #220 Seattle, WA 98125

榮味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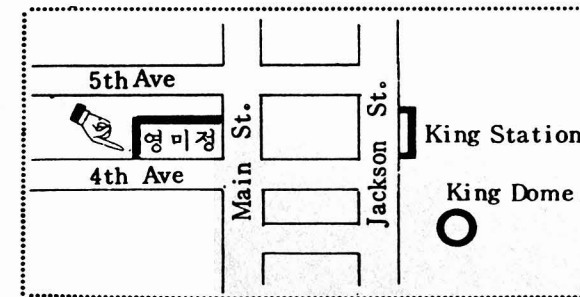


영미정

YOUNG ME RESTAURANT

- 최신식 완전 자동냉면기계 설비
- 대 연회장 완비
(400명 이상 한자리에 모실수있음)
- 20 ~ 40명 회합할수있는 특실
- 넓은 주차장 시설
- 나이트 클럽 (4인조 밴드및 가수)

대표 조 영



7 DAYS A WEEK
11:00 AM 2:00 AM

금요일·토요일은
새벽 3시30분까지
해장국을 합니다.

623-3112

220 4TH AVE S SEATTLE, WA 98104

중국여행

6 월 22일 ~ 7 월 13일

○가 격 : \$2,875 - 전부 포함

○여행순서 : Hongkong, Canton, Suilin, Shanghai, Nanjing, Louyang, Xian, Beijing, Chengde

○연 락 처 : Paull Shin(신호범)

546-4736(학교), 778-1972(집)

FORBIDDEN PASSAGES 22 DAYS YOUR PASSAGES ITINERARY INCLUDES THROUGHOUT

DAY-BY-DAY ITINERARY

Day 01 Depart the United States for Hong Kong.
Day 02 Arrive **Hong Kong**. (2 nights)
Day 03 Hong Kong sightseeing / leisure.
Day 04 To **Guangzhou** by train; air to **Guilin**. (2 nights)
Day 05 Guilin sightseeing.
Day 06 To **Shanghai** by air. (2 nights)
Day 07 Shanghai sightseeing.
Day 08 To **Nanjing** by train. (2 nights)
Day 09 Nanjing sightseeing.
Day 10 Nanjing sightseeing; overnight train to **Luoyang**. (1 night)
Day 11 Arrive Luoyang; sightseeing. (2 nights)
Day 12 Luoyang sightseeing.
Day 13 To **Xi'an** by air; sightseeing. (2 nights)
Day 14 Xi'an sightseeing.
Day 15 To **Beijing** by air. (3 nights)
Day 16 Beijing sightseeing.
Day 17 Beijing sightseeing.
Day 18 To **Chengde** by train; sightseeing. (2 nights)
Day 19 Chengde sightseeing.
Day 20 To **Beijing** by train. (1 night)
Day 21 To **Hong Kong** by air. (1 night)
Day 22 Return to the U.S.A.

- Round-trip air transportation as set forth in brochure via internationally scheduled air carrier.
- Hotels: Twin occupancy, with private bath.
- Pre-registration in all hotels.
- Portage of one bag per person.
- All transfers via air, rail, ship, boat, or air conditioned motor-coach.
- All customary group admission fees and service charges.
- Locally hosted bilingual guides and escorts.
- Information materials pursuant to destination.
- Passages flight bag.

PEOPLE'S REPUBLIC OF CHINA

- Three meals daily, per custom of the land.
- Comprehensive daily sightseeing.
- Traditional Chinese Banquet.
- China visa and processing fees.
- Hotels as assigned by China International Travel Service.
- Comprehensive China Guidebook.

HONG KONG

- Full American breakfast daily.
- Half-day Hong Kong Island Tour.
- First-class hotel accommodations.
- Passages Reception Desk in hotel lobby, staffed eight hours daily.

HAHN, MAN SOP
12904 S.E. 45TH LANE
BELLEVUE WA 98006

569

98006

Non-Profit Org.
U. S. POSTAGE
PAID
Seattle, WA
Permit No. 919